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5. 31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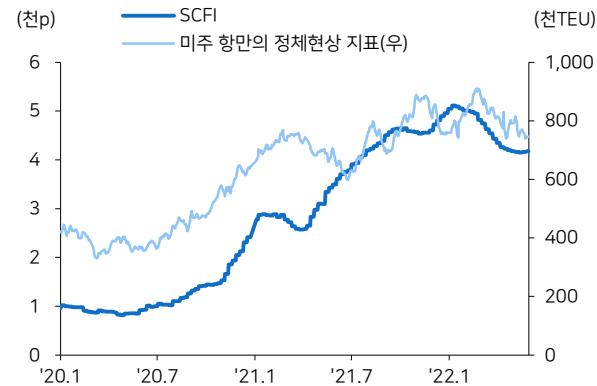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71p(-11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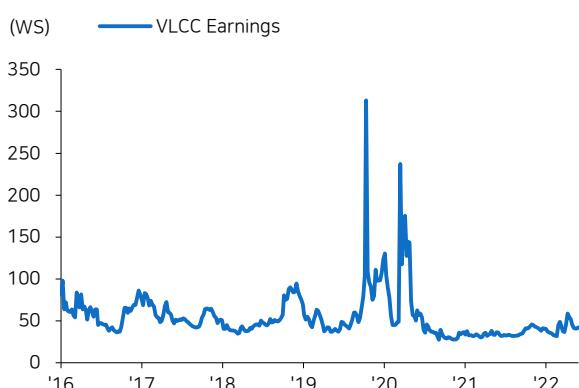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75.4(+12.7p WoW)



VLCC Spot Rate

42.3p(+1.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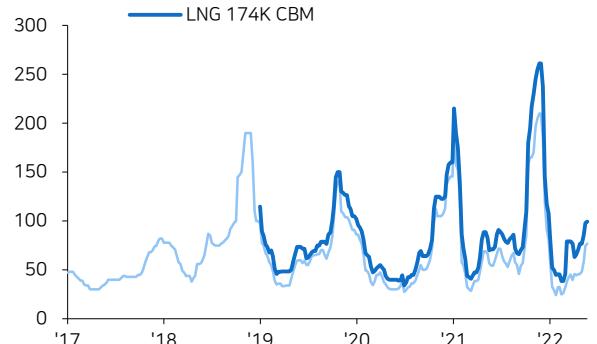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76.8p(+2.0p WoW)

99.5p(+1.5p WoW)

(천달러/일) LNG 160K 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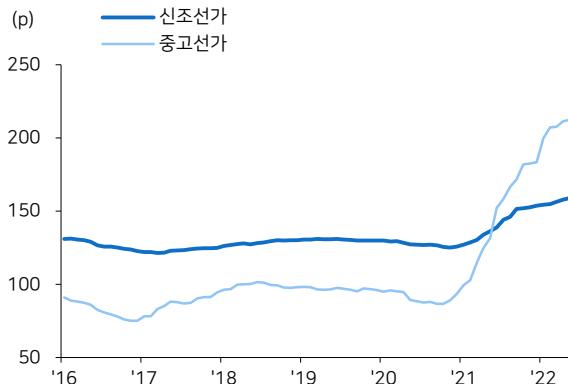
(천달러/일) LNG 174K CBM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1p(+1.1p WoW)

211.5p(+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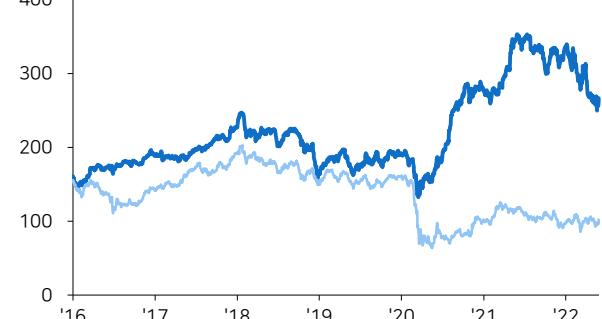
항공시장 지표

266.4p(+4.6p DoD)

102.2p(+1.9p DoD)

(p) MSCI 항공화물 index

(p) MSCI 여객 Index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Heavy Industries takes rare feeder container ship order from Tsakos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Tsakos Group으로부터 피더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4척의 2,8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2023년말 ~2024년초 사이 인도될 예정임. 선가는 척당 4,700만달러수준임. 현대중공업은 주로 7,000TEU 이상의 대형 선박들만 건조하지만 프리미엄을 얹은 선가에 수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Two LNG carrier newbuilding resales draw a crowd

나이지리아 에너지 업체가 LNG운반선 2척을 리세일한다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되고 있는 174,000CBM급 선박으로 당시 높은 가격이었던 척당 2.24억달러에 밸주된 바 있음. 최근 리세일에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척당 2.26~2.28억달러에 매수하겠다고 나섰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의 인도기한은 2025년인데, 최근 대형 LNG 조선소들의 건조슬릿이 없어 2026년까지도 타이트한 상황으로 보도됨. (Tradewinds)

케이프 시장 하락세

지난주부터 벌크 시장은 케이프 시장이 폭락하는 등 모든 선형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해상운임 선물거래(FFA) 시장이 침체되며 시황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됨. Capesize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확장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회복 기대감이 무너져 하락함. 중국 재봉쇄 가능성에 고조되며 철광석 수요도 급감함. 또, 인도가 몬순 우기로 접어들며 석탄 수입이 감소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됨. 그러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향후 선복부족으로 선적이 미뤄졌던 수요 중심 반등을 전망함. (코리아쉬핑가제트)

Clarksons 'broadly positive' on 2023 as tanker demand growth pegged at 4%

Clarksons는 2023년 탱커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원유교역향로 마일 수가 증가하며 수요는 DWT기준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선대 증가율은 1% 미만이고, 친환경 규제가 시행되며 시황 개선의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설명함. (Tradewinds)

EU, 러시아산 원유 금수 합의 실패

유럽연합이 헝가리의 반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됨.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알려짐. 헝가리는 크로아티아의 송유관 설비를 확장하도록 EU가 재정지원을 할 것을 요구함. (파이낸셜뉴스)

티웨이항공, 인천~싱가포르 노선 취항...국내 LCC 최초

티웨이항공이 국내 LCC 최초로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고 보도됨. 우선 주 2회 운항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편을 통해 매일 운항까지 확대할 계획임. 인천~싱가포르 노선에는 2022년 도입한 대형기 A330-300이 투입된다고 알려짐. (에어진)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